

한라시론



성주엽 생각하는 정원

정원은 삶의 선택이 아닌 필수다

현대인의 삶은 스마트한 세상을 이끌어가는 첨단과학의 결과물과 편리성을 추구하는 인공적 도시건축물로 둘러싸여 있다. 하지만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기에 자연과 함께 할 때 몸과 마음이 안정되고 건강해진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더욱 자연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데 그것의 가장 효율적인 것이 정원이다. 영국의 정원예술가 거트루드 지킬은 이렇게 말했다. "정원은 위대한 스승이다. 정원은 우리에게 인내심과 조심스러운 관찰과 근검절약 그리고 무엇보다 전적인 신뢰를 가르

친다." 또한 '아는 것이 힘'이란 명언을 남긴 영국의 프란시스 베이컨도 "정원은 인간에게 가장 큰 청량제여서 정원이 없다면 궁전과 건물은 조잡한 작품에 불과할 뿐이다. 예의 바르고 우아한 시대라면 사람들은 위엄 있게 집을 짓고 섬세하게 뜰을 가꿀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인류 역사에서 정원은 한때 왕족이나 부유한 계층의 전유물이기도 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친근한 문화공간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제 정원은 우리의 생활공간인 아파트 단지, 개인주택, 건물 실내로까지 들어오고 있다. 정원문화가 발달한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가족과 지인들의 죽음으로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 있어 정원 가꾸기가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한다. 또

한 햇빛을 보기 어려운 나라에서는 정원 가꾸기로 우울증을 치료하기도 했으니 그들은 정원의 필요성과 치유 능력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정원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일까. 1981년 정원국제위원회의 피렌체 현장에서 정원은 현대생활의 긴장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으며, 자연을 통해 우리의 삶을 느끼며 자신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곳이라 했다. 또한 정원은 문명과 자연의 직접적인 동족 관계의 표현으로서, 명상과 휴식의 장소로서, 세계에 대한 이상적 상(像)의 우주적 의미와 낙원의 영원적 의미를 포함하며 문화·예술가의 독창성을 증진한다고 정의했다.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자유와 행

복이다. 그 가치는 누구에게나 소중한지만 삶의 경험이 풍부해질수록 자연과 가까워지며 자연의 품에서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나무와 정원은 결과를 보는 문화가 아니라 과정을 느끼는 문화이기에 빠르게 움직이며 많은 것을 도전하는 젊음보다 과정을 보고 과정에 감동하는 적당한 나이 들에서 더 진하게 자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자연과 함께하려는 성숙한 반려의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삶의 한 공간에서 자신만의 정원을 가꾸어 나갈 수 있다. 정원을 가꾸고 정원 속에서 살고 싶다는 바람은 이제 삶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가고 있다. 그런데 정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원의 나무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그 속에는 아주 많은 삶의 지혜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편집국 25시

언론이 적인가?



김도엽 행정사회부 기자 doyoung@ihalla.com

"어디시라고요? 이거 기사 쓰는 건가요?" 전화기 너머 공무원은 평소와는 다른 답변을 했다. 단순한 통계 확인을 위한 취재 전화였는데 공기가 달랐다. 이런 상황이 몇 번 더 있었다. 통화를 한 이후에 다시 전화가 와 "기사를 쓰는 것이냐", "내가 궁금해서 그런다. 이걸 왜 물어보는 것이냐" 등등. 제주도는 지난달 14일 '갈등 사안 선제적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언론 취재사안 등 신속 보고체계 운영'이란 이름으로 도지사 요청사항을 전 부서에 하달했다. 해당 문서에는 언론사 명과 기자 이름, 취

재 목적, 보도 예정일, 취재 협조 내용, 비판 보도 예상 시 향후 조치 계획 등을 기재해 소통담당관에게 제출하라고 명시됐다. 제주도 기자회견은 여론 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격 기능을 후퇴시키는 반민주적 조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도는 "갈등 관련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언론 보도 후 사안을 인지하는 문제로 지점을 내렸다"는 공색한 변명에 급급하다 한 달만인 지난 19일 철회를 밝혔다. 언론 보도 후 갈등 사안을 인지하는 것이 왜 문제인지 의문이다. 보도가 없다면 그냥 모른 척하겠다는 것인지, 내부의 소통 문제의 화살을 외부로 돌린 이유가 궁금하지만 그 기저에는 언론에 대한 적대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언론이 적이면 시민도, 도민도 적일 수 있겠다. 다행인 것은 제주도에선 전용기가 없어 탑승 배제될 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뉴스-in

ICC제주, 공무원 파견 연장 요청

도, 내년 1월 정기인사 발령 ○...이선화(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 대표이사가 지난 10월 19일 취임했으나 ICC제주의 조직 내 갈등관리와 조기 경영 정상화 기반 마련을 위해 현재 파견 근무 중인 공무원 2명에 대한 파견 연장을 요청. 제주자치도는 공무원 파견 연장 요청에 따라 조직·인사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 내년 1월 상반기 정기인사 시 파견 여부를 결정할 예정. ICC제주 관계자는 "앞으로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도 추진해야 하고 해서 계약과 회계 분야 전문가가 필요해 파견 연장을 요청했다"며 "현재 공로 연수에 들어간 4급 단장까지 총원해줄지 아니면 1명만 파견 연장을 해줄지 모르겠다"고 언급. 고대로그 기자

잘못 송금 반환 5000만원까지 ○...내년부터 금융소비자가 실수로 잘못 송금했을 경우 현재 1000만원까지 반환이 지원되던 데서 내년부터는 5000만원까지로 확대. 예금보험공사는 21일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로 착오송금 발생과 그 금액도 비례해 증가함에 따라 '착오송금반환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 우선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요청해야 하고, 반환이 거절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하면 된다"며 "중요한 것은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송금 전에 예금주와 계좌번호, 송금액 확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미숙기자

사설

전국 최빈곤 중장년층, 도 대책 서둘러야

제주지역 중·장년층이 전국서 가장 가난한 삶을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근로자 소득 전국 최하위에 이어 중장년층들의 평균 소득도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 대출과 무주택 비중도 타 지역보다 높았다. 지역사회 급속한 고령화속에 중장년층들의 삶이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도정서 나서야 할 때다. 통계청의 '2021년 중·장년층 행태조사'를 보면 도내 중장년층 평균소득은 3218만원을 기록, 전국 평균 3890만원보다 17%나 낮은데다 전국 17개 시도중에서 최하위였다. 금융권 대출잔액 보유자 비중은 61.6%로 10명중 6명꼴 대출자였다. 중장년층 개인소득 주축비중은 43.8%에 그친 반면 무주택자가 56.2%에 달했다. 노후준비용 공적연금이나 퇴직연금 가입자는 76.8%이지만

나머지 23.2%가 연금에 하나도 들지 않았다. 도내 중장년층들이 낮은 소득에 대부분 대출자이면서 무주택 무연금자도 많아 불안한 노후생활을 예고하는 것이다. 반면 중장년층 인구는 작년 11월 1일 기준 26만3000명을 기록, 도민인구 대비 40.6%로 0.4% 포인트 증가했다. 지역사회가 위기에 처한 중장년층들의 고단한 삶에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자체의 다양한 일자리 일거리 대책이 대다수 중장년층들에게 생계비와 건강 정서 등에 도움을 주도록 최우선 확대돼야 한다. 단순 일자리 개념을 넘어 복지 의미도 큰 공공형 일자리 확대도 그 중 하나다. 중장년층의 빈곤과 가족 중심 부양 붕괴 가속의 현실은 행정 중심의 다각적 대책 필요성을 확실하게 보이고 있다.

상장기업 유치 때 새겨들어야 할 쓴소리

제주에 상장기업 20개를 유치해 육성하겠다는 것은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의 핵심정책이다. 제주에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기업성장을 견인하고 지역경제를 도약시키기 위해서다. 상장기업 유치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기업인들이 건설적인 제안과 쓴소리 등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 주목된다. '제주 상장기업 20개 유치·육성을 위한 전략과 과제' 심포지엄이 그제 제주연구원에서 열렸다. 김한상 제주스타기업협회장은 "기업을 육성·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기술과 인력 등이 필요하지만 제주는 기술을 뒷받침할 만한 인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CEO를 했던 박종명 제주양조장 대표는 "작년까지 투자유치사업 28개 중 성공한 투자는 3개 정도, 나머지는 소송 등으로 진통을 겪

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행정에서 제일 좋은 투자유치는 어떤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며 "투자한 기업을 성공시키면 그것보다 더 좋은 투자유치는 없다"고 강조했다. 기업인들의 지적이 일리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상장기업 유치는 쉬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우선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도적으로 받쳐줘야 한다. 그동안 행정의 이윤배반적인 행태를 여러번 보았다. 단적으로 영리병원의 경우 건물 다 짓고 의료진까지 갖춰 개설하려니가 막판에 문닫게 만들었다. 또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오라관광단지는 갖가지 발목잡기로 사실상 무산시켰다. 오영훈 도정이 상장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클
미국식품의약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율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립JK약백도라지연구소

농공단지 토지 구합니다
면적 1,000평 이상 (시설물 있어도 무관함)
지역 제주도 내의 모든 농공단지
연락처 064-746-7100

향운철학관
향운거사 이방택
사주, 관상 2가지 방법을 종합해서 운명을 감정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기운명이 현재, 미래에 어떠한 운명인가를 알아서 살아가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성공할 것인지 대학은 문과를 가야할 것인지 이공계열을 가야할 것인지 미래의 진로를 선택해야 할 중3, 고1, 2년생 환영합니다.
하루에 오전, 오후해서 2명만 전화 예약 받습니다.
북비 : 50,000원
전화 010-7301-7737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감귤묘목 분양
※ 만감류
● 윈터프린스 1년생
● 카라향 1년생 ● 황금향 1년생
● 천혜향 1년생 ● 레드향 1~2년생
● 한라봉 1년생 ● 탐나는봉 2년생
● 미니향 2년생 ● 레몬3년생,
● 제라문2년생 ● 미니문1년생
● 하굴(아마나스)1~4년생
※ 극조생 & 조생
● 궁전조생1~3년생 ● 유라조생1~2년생
● 하례조생 1년생 ● 히노야까리 3년생
● 오히라베니와세(궁전변이지) 1년생
※ 포트묘목
- 유라조생, 윈터프린스, 레드향, 한라봉 외
※ 탱자묘목
민성종묘는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중요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귤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민성종묘
농장 : 강정동465-1, 1013-1, 2327-1 하예동1831-2번지 외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 / 010-8948-1082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이내 가능합니다."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등기는 되어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소유권 이전 분쟁시 송사자료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투데이